

# 복수하는 여성 원혼의 서사적 정체성

권도영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목차

- 1 서론
- 2 원혼이 되는 여성 주체들
- 3 여성 원혼의 복수서사
- 4 여성 원혼의 서사적 정체성과 성정치적 의미
- 5 결론

이 논문은 한국여성문학학회 2023년도 제1차 정기 학술대회(2023.06.03.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여성 범죄의 성정치> 기획 주제로 발표한 논문 '구비설화 속 여성 복수 서사의 수호자 정체성'을 수정보완한 것임.

한국구비설화에서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버림받음으로 인해 원혼이 되어 상대 남성에게 가해하는 서사를 발견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대표적으로 <첫날밤 소박맞은 신부>, <조월천과 상사뱀>, <신립장군과 원귀> 세 유형의 자료에 주목하여 원인사건과 복수사건으로 이루어지는 복수서사의 구조를 확인하고, 각 시퀀스 안에서 여성 주체의 존재적 속성과 관계적 속성이 달라지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여성 원혼의 복수서사는 서사적 정체성의 개념을 통해 분석했을 때 고정된 본질적 속성으로서의 여성이라는 존재적 속성 때문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관계 맺음의 과정에서 그 존재적 속성 자체를 원혼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관계적 속성을 형성하고 이로써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서사로 볼 수 있다. 여성 원혼의 복수서사는 원혼 형상을 갖춘 후에야 복수 행위를 시도할 수 있었고 그 되갚음의 행위가 상대 남성의 사회적 지위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 성정치적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국문핵심어: 복수, 여성 원혼, 서사적 정체성, 존재적 속성, 관계적 속성, 성정치, <첫날밤 소박맞은 신부>, <조월천과 상사뱀>, <신립장군과 원귀>

## 1 서론

문학작품 속에서든, 실제 삶 속에서든 어떤 인물의 행위에 대해 단지 그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여 판단이 이루어질 때 문제 해결의 길은 요원하고 인물은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때의 정체성에 의거한 판단은 타자를 규정하고 배제함으로써 단일하고 균질적이며 통일된 정체성을 갖는 특정 공동체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절대적이고 완전한 헌신 및 동일시를 이루는 정체성 정치<sup>1</sup>의 태도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처럼 정체성이 판단의 기준이 될 때 그것은 매우 본질주의적 입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개인이 처한 개별적·외적 상황이나 내면에 대한 관심과

---

1 제임스 프록터, 손유경 역, 『지금 스튜어트 홀』, 엘피, 2006, 218-220쪽 참고.

이해는 뒷전으로 미뤄진다. 그러한 사례 중 하나가 성적 정체성에 기반한 젠더 갈등이고 이때 그 무관심과 몰이해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여성의 몫이 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구비설화에서 흥미롭게 살펴볼 만한 자료가 여성 원혼들의 서사이다. 강고한 가부장 체제가 지탱하던 전통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갖기 힘들었던 여성들이 비로소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며 세상을 향해 존재를 외치는 서사가 되기 때문이다.<sup>2</sup> 특히 정절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시기에 휘절의 경험은 여성의 사회적 죽음을 의미하기에 자살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억울한 죽음에 대해 환생과 귀환을 요청함으로써 신원과 소통에 관한 상상적 출구가 부여된 결과로서 여성 원혼 설화를 이해할 수 있다.<sup>3</sup> 여성 인물의 억울한 죽음은 사회적 죽음의 의미를 갖고, 이 억울함에 대해 원혼의 형상으로 행동하는 것이 여성 원혼 설화이다.

그런데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유형분류에는 대분류 ‘6. 오고가기’ 중 ‘64. 갈 만해서 가기’에 ‘642-2. 버림받은 여자 원귀 되어 보복하기’라는 하위 항목이 있다. 이 항목의 목록 중 22편은 <신립장군과 원귀>의 각편에 해당하고, <첫날밤 소박맞은 신부>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 4편,<sup>4</sup> <조월천과 상사뱀>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 3편<sup>5</sup>이다.<sup>6</sup> 그 외의 것들은 『대계』에서도 각편 한 편만 보이는 것이다. 우선

---

2 “원혼설화가 욕망의 문제를 드러내는 데 적합한 이유는 원혼의 발생과 재현과정에서 개체로서의 욕망이나 자의식이 변형(원혼화)을 유발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욕망의 서사는 사회역사적 상황 아래서 당대적 문제의식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면서 변모되어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욕구형 원혼설화는 그 같은 욕망과 외부적 제약과의 상충성에 대한 논쟁을 민중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담론화한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러한 이유로 원혼담론은 사회적 주변인의 말하기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강진옥, 「욕구형 원혼설화의 형성과정과 변모양상」, 『한국문화연구』 제4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3, 19쪽).

3 최기숙, 「“여성 원귀”의 환상적 서사화 방식을 통해 본 하위 주체의 타자화 과정과 문화적 위치-고전 소설에 나타난 “자살”과 “원귀” 서사의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고소설연구』 제2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6, 341-342쪽.

4 ‘신부의 한을 풀어주고 벼슬한 사람’(2-8, 영월읍90), ‘소박 당하고 원귀가 된 며느리’(6-6, 임자면20), ‘신부의 원혼’(8-2, 사등면20), ‘말 못할 사연’(8-2, 동부면13), ‘밀양 범전 땅 오봉에 전설’(8-9, 상동면42).

5 ‘천하명사 남사고의 묘자리 보는 눈’(2-5, 손양면34), ‘지조 있는 선비의 과거길’(5-7, 산

이런 항목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에서 그 항목명을 구성하는 ‘버림받음’, ‘여자’, ‘원귀’, ‘보복하기’<sup>7</sup> 등의 키워드에 주목하게 되는데, ‘버림받음’의 상황은 상대 남성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 발생하고, 남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여성들은 원귀가 되어 상대 남성을 향하여 가해한다.

피해 입음에 대한 되갚음을 뼈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복수서사는 ‘복수의 원인이 되는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보복 의지를 가지고 복수하는 사건으로 구성되는 서사’이다. 피해 입음과 되갚음은 각각 원인사건과 복수사건의 에피소드<sup>8</sup>가 되는데, 그 진행 과정에서 서사의 주체가 되는 여성 인물이 원혼으로 변신함으로써 정체성에 변화가 생긴다. 본고에서는 고정된 본질적 속성으로서의 여성이라는 존재적 속성 때문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관계 맺음의 과정에서 그 존재적 속성 자체를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관계적 속성을 형성하고 이로써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서사로서 여성 원혼의 복수서사를 보고자 한다. 이를 서사적 정체성의 개념을 통해 분석하여 여성 원혼에 의한 복수서사가 갖는 중층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본고의 목표이다.

외면18), ‘여자의 원한 산 입백호’(6-8, 황룡면22).

- 6 여기에서 집계한 것은 유형 범주 안에서 유사성을 기준으로 하여 논의한다. 해당 채록 자료들이 어느 설화의 각편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별도의 논의를 요구하는 작업이 된다. 『한국구비문학대계』 자료의 서지사항은 대계 채록 제목과 대계 권호, 지역명 기준 설화번호를 병기하여 표기하며, 인용문은 맞춤법 수정을 하지 않은 채 채록 자료 그대로 제시한다.
- 7 보복(報復)은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줌’이라는 뜻이다. 같은 의미로 ‘복수(復讐)’라는 용어도 쓰이는데, 복수는 ‘원수(怨讐)를 갚음’이고, ‘원수’는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이다. 문학 담론에서 ‘보복서사’보다 ‘복수서사’라고 명명했을 때, 당한 만큼 되갚는 행위에 대해서 그 ‘원한’의 감정에 관심을 두고 서사적 의미를 다루게 되기에 특히 여성 원혼에 주목하고자 하는 본고의 입장에서는 『대계』 유형 분류의 ‘보복하기’에 관심을 두면서도 ‘복수서사’로서의 의의에 좀 더 주목하고자 한다.
- 8 정은지, 「복수설화의 전승양상과 사회문화적 의미」,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64쪽. 이 논문에서는 원인사건과 복수사건을 에피소드(episode)로 칭하였다. 그러나 단일한 사건으로서의 의미보다,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특정한 장면들의 연결을 통해 작품 내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을 일종의 단위로 나누어서 파악할 수 있음에 좀 더 주목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의 관점을 드러내는 데에는 시퀀스가 적절한 용어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앞으로 원인사건과 복수사건의 시퀀스를 기준으로 하여 논의할 것이다.

## 2 원혼이 되는 여성 주체들

본고의 주자료는 『대계』 유형 분류 ‘642-2. 버림 받은 여자 원귀 되어 보복하기’의 목록을 참고하여 여기에서 추출된 <첫날밤에 소박맞은 신부>, <조월천과 상사뱀>, <신립장군과 원귀> 세 편의 설화를 주축으로 한다.<sup>9</sup> 이 설화들에서 여성 주체가 원혼이 되는 과정을 먼저 살펴볼 것인데, 이는 복수서사에서 원인사건의 시퀀스를 구성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동원하는 ‘서사의 주체’ 개념은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에서 특정한 서사를 이끌고 가는 주체로서의 인물에 주목하는 개념으로서 ‘주인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서사의 주체는 작품의 등장인물 각각을 주체로 하여 각각의 서사를 구성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제시되며, 이에 따라 등장인물의 수만큼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sup>10</sup> 세 설화에서 원혼이 되는 여성을 서사의 주체로 하여 원인사건의 시퀀스를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설화	원인사건의 시퀀스
<첫날밤 소박맞은 신부>	결혼(신혼 첫날밤) → 신랑이 도망감 → 좌절하여 죽음 → 원혼이 됨

9 『한국구비문학대계 유형분류집』의 유형 분류와 목록은 참고로만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유형 분류가 가능하다는 사실 현황 자체에 주목한 것이고, 이 유형에 목록화된 자료들에 대해서 서사적 판단은 본 연구자의 입장과 다소 다른 것들이 있어서 이 목록대로만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신부의 원혼’(8-2, 사등면20)은 『문학치료서사사전』(정운채 외, 문학과치료, 2009.)에 의하면 <첫날밤 도망간 신랑과 죽어서도 기다린 신부>의 각편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신랑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 행위는 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복하기’라고 보기에 어려운 면이 있다. ‘천하명사 남사고의 묘자리 보는 눈’(2-5, 손양면34)은 『문학치료서사사전』(복합서사)에서는 ‘손에 명주 감고 치녀 만진 조월천과 상사뱀+개 가시킨 며느리가 지어준 퇴계선생의 버선+뿔자리 아홉번 읊긴 남사고’의 복합서사로 정리되어 있다. 복합서사인 경우 이처럼 여러 설화들이 겹쳐 있기에 상사뱀이 된 여성주체에 게만 집중하여 보기에 무리한 면이 있다. 이러한 정황들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첫날밤 도망간 신부>, <조월천과 상사뱀>, <신립장군과 원귀>의 유형명으로 범주화하여 여성 원혼의 복수서사가 갖는 특징을 분석한다.

10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 및 서사의 주체와 문학연구의 새 지평」, 『문학치료연구』 제 21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1, 241쪽.

〈조월천과 상사뱀〉	상대 남성에게 마음을 표현함 → 남성이 거부함 → 좌절하여 죽음 → 원혼(상사뱀)이 됨
〈신립장군과 원귀〉	상대 남성에게 마음을 표현함 → 남성이 거부함 → 좌절하여 죽음 → 원혼이 됨

여성 주체들이 심각한 좌절을 겪게 되는 지점은 공통적으로 남성의 거부로 인해 나타나는데, 남성의 거부와 그로 인해 여성이 좌절하여 죽음에 이르는 지점을 구연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자 (신랑이) 그만 가뿌레 빠랬구만요. 하인을 불러가지고 집으로 가 뿌랬어요. 그래, 그 여자는 원이 되어 가지고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냥 앉아 가마이 쪽도리 치고 인제 쪽도리 쓰고 혼 옷 입은 채로 그냥, 그냥 앉아 죽었어요.〈첫날밤 소박맞은 신부〉<sup>11</sup>

—(조월천이) 손수건, 명지 손수건을 네모졌는 걸 내가주고 오른쪽 손에다 요래 탕탕 감었어. 감으니까네, 감아가주고 그 인자 날(낮)을 한 분 사르르 내리 씨담아 좇어. 씨담아 주이, 그월이는 생각에는 ‘하하 저거 나는 상끼고(8)[주]상놈이고. 상것이고. 저는 양반인께네 내, 지 살찜도 내 살찜에 대면은 안 뒸다고 저라는가’싶어 마 거어서 마 그 여자가 고 마 죽었어요.〈조월천과 상사뱀〉<sup>12</sup>

—“난 자기 때문에 살았으니 죽으나 사나 따라 가겠다.”고. “그러나, 난 장가를 든 사람이고 아내가 있는 사람이니 데려 갈 수 없다.” 하니, 색시가 소실(小室)로도 좋다 이거야, 그러나, 안된다고 궂이 뿌리고 가네. 할 수 없이 혼자 남기고 떠나는데, 동구 밖에 나서니 소리를 지른, 소리가 난단 말야. 획 뒤돌아 보니 큰 집에 불을 지르고 그 위에 올라 가서 소리

11 ‘신부의 한을 풀어 주고 벼슬한 사람’(2-8, 영월읍90)

12 ‘조월천과 상사뱀’(7-11, 산성면25)

를 질러. 여자가 타 죽었던 말야.<<신립장군과 원귀)>><sup>13</sup>

여성 주체들은 자신이 관계 맺기를 시도했던 남성들로부터 거부당함의 사건을 겪은 후에 곧바로 자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이들에게 남성의 거부는 분노 유발 사건으로 작용하였고, 이들의 극심한 분노는 곧 자기 자신을 향한 공격적 에너지로 작동하였다.<sup>14</sup>

이들 여성 원혼들은 모두 결혼을 통해 가족 제도 안에 포섭되기 이전에 이성 상대로서의 선택과 관계 맺음에 주안점이 있기에 ‘자신이 욕망했던 대상으로부터 버림받음’이라는 것이 이 설화들에서 여성 주체가 복수 행위를 하게 된 주요 인이라고 할 것이다. 첫날밤 소박맞은 신부는, 혼례식은 거쳤지만 첫날밤 예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기에 아직 정식 부부의 예를 이루었다고 보긴 어려운 상태이다. 그렇기에 이는 지속에 주안점을 둔 부부서사라기보다는 선택에 주안점을 둔 남녀서사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sup>15</sup>

그런데 애정대상과의 문제라고 해서 성적 욕망만을 기준으로 하여 보는 것

---

**13** ‘신립장군과 탄금대’(2-9, 주천면24)

위의 세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동일한 시퀀스를 보이는 설화와 장면으로 다음의 자료들도 참고하여 함께 볼 수 있다.

—(여자가 임백호를) 찾아 들어가서는 인자 임백호를 뵈온게 기들도(거들떠) 안뜨더 보거든. 그때, 호식(좋은 말)을 해서 보내버려야 허는디 거들도 안 떠보니까, 가다 방죽이 가서 물에가 빠져 죽어버렸어 (‘여자의 원한 산 임백호’, 6-8, 황룡면22).

—“우째 여길 들어왔느냐?” 물으니까, “서방님 글 읽는 소리가 하두 참 좋아서.” 말이지, “나두 모르게 어떻게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드란 말이야. 그래, “나가서 냉큼 종아리첼 해 오너라.” 구. 그땐 종아리첼 해 오라든 해 왔대는구만. 어, 그래 종아리첼 해 오니깐, 목침을 해놓구 여기 올라서라 하구선, 종아릴 세 달 때렸대는거야. 그럭 인젠, “나가거라.” 그래니 뭐 그 지경을 했시니 뭐 잠이나마나 뭐 그래서 그냥 흰하게 명이 틀었어. 그러니까는 인제 간단 일어나 보니깐 사람덜이 수선수선하는데 보니까는 문 밖에 나가서 서까래에다가 목을 매구 죽었드래는 거야(‘화몽정 전설’, 2-6, 황성읍3).

**14** 권도영, 「여성 원혼설화에 나타난 분노 표출의 문제 분석 및 해결서사 탐색」,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35쪽 참고.

**15**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제9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254-266쪽 참고.

은 자료의 실상을 한정하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 여성 주체들이 좌절된 지점과 그 전후의 맥락을 다시 살펴보면 이들이 단지 자신이 원했던 애정 대상과 관계 맺음을 성공적으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좌절된 것만은 아닌 지점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첫날밤 소박맞은 신부><sup>16</sup>는 이제 막 새로운 관계의 국면으로 진입할 참이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해내야만 하는 성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통과의례로서의 혼인식은 첫날밤의 합방까지 완료해야 의례의 의의를 다할 수 있다. 신부가 맞이하게 될 합방의 의례는 이성 상대와의 성적 결합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다. 혼인식을 통해 부부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가족 관계에 진입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됨을 의미한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휘질이 여성의 사회적 죽음을 의미한다고 했던 것처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가족제도 안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사실 역시 사회적 죽음의 의미를 갖게 된다.

<조월천과 상사뱀><sup>17</sup>에서 조월천에게 연모의 마음을 표현했다가 상사병을 앓게 된 월이의 경우에도 그의 존재적 좌절에 주목했을 때 그 욕망과 좌절의 결을 좀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다. 월이가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된 결정타는 “하하저거 나는 상것이고. 저는 양반인께네 내, 지 살찜도 내 살찜에 대면은 안 났다고 저라는가”와 같이 발화되었다. 이미 자신의 마음을 전달했던 편지를 조월천이 찢어버린 일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은 월이는 사경을 헤매는 병자로서 마땅히 받을 만한 위로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일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고 죽어 뱀이 되었다. 관계 맺음의 주체와 대상 사이에 욕망이 매개될 때 수평적인 관계가 바탕이 된다면 ‘자신이 상대를 원함’, ‘상대가 자신을 원하지 않음’의 조건에만 집중할

16 첫날밤에 신랑이 이유도 없이 도망을 가버리자 신부는 혼례복 입은 그대로 굳어 원혼이 되었고,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된 신랑이 찾아와 위로해 주자 사그라들었다는 내용이다. 흔히 ‘사그라든 신부’ 등의 유형명으로 칭하기도 한다.

17 조월천을 사모하게 된 이방 딸 월이가 편지를 전했다가 월천이 외면하자 상사병을 앓게 되었다. 조월천은 딸을 위로해 달라는 이방의 청도 무시하다가 겨우 월이를 찾긴 했지만 손에 수건을 감은 채 얼굴을 쓰다듬어 이에 좌절된 월이는 죽어 상사뱀이 되었다. 조월천을 따라다니던 상사뱀을 조월천의 스승인 오성대감이 알아보고 붓뚜껑에 잡아 넣었으나, 조월천의 동생이 뚜껑을 여는 바람에 상사뱀이 튀어나와 조월천의 형제들을 모두 휘감아 죽이고 집안은 멸족을 당하였다는 내용이다.



수도 있겠다. 하지만 조월천과 월이의 경우엔 양반 자제와 이방의 딸이라는 신분 차이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월이에게 자리하게 된 ‘상것’이라는 자기 인식은 조월천의 행동에 대해 좋아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음 정도가 아닌 ‘상것’의 욕망이나 목숨 따위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다.

월이의 복수서사에서 원인사건의 시퀀스는 두 단계를 거친다. 1단계는 편지를 거부당한 것이고, 2단계는 위로를 거부당한 것이다. 편지를 거부당했을 때 마음의 상처를 입었기에 상사병으로 앓아눕게 된 것이었는데, 위중한 상태에서도 조월천의 진심 어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면 차도를 보였거나 혹은 끝내 숨을 거두게 되더라도 좀 더 마음 편히 최후를 맞이할 수 있기에 원혼으로 변신하게 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월이에게 두 단계에 걸쳐 발생한 거부 사건은 월이에게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경험이었기에 이는 강력한 복수의 위력을 발휘하는 상사병으로의 변신이 이루어지는 동력이 되었다.

<신립장군과 원귀><sup>18</sup>에서 처녀의 집안이 폐망하게 된 연유에는 각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오래된 재물 등의 사귀(邪鬼)에 의한 것이기도 하고, 집안의 재물을 탐한 종의 패악이기도 하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이제 자기 차례라고 죽을 날만 기다리던 외딴 집 처녀가 용맹한 장수를 만나 목숨을 건지게 된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소실(小室)로도 좋으니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을 때 이 여성의 요구 또한 성적 욕망의 차원에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본 연구자의 관점이다. 산속 외딴 집에서 처녀 혼자 목숨 부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일 수 있다.<sup>19</sup> 성적 욕망의 관점에서 본다면 처녀가 신립의 용맹함에 반해 성적 매력을 느끼고 그와 함께하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소실로라도 데리고 가달

---

18 신립이 사냥 갔다 길을 잃어 처녀 혼자 있는 산속 외딴 집에 묵게 되었는데, 처녀의 목숨을 위협하던 존재를 신립이 처치한 후 처녀가 신립에게 자신을 데리고 가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떠나자 처녀는 나 좀 보고 가라고 신립을 부른 뒤 불 지른 집 지붕에서 뛰어내렸다. 나중에 임진왜란에 신립이 장수로 나섰을 때 조령이 아닌 탄금대에 진을 쳤다가 크게 패하고 신립도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것이 이 설화의 기본 줄거리이다.

19 현대 독자의 감각으로는, 산속에서 살기 힘들면 혼자서라도 마을에 내려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일이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여성이 혼자 집을 나설 때에는 중이나 남성으로 변장을 해야 했던 설화 세계의 배경을 떠올려보면, 이 처녀에게 그것은 보편적인 행동방식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애원한 것이 된다. 그러나 목숨을 위협하던 대상은 사라졌지만 그 이후 삶을 홀로 살아가야 하는 처녀의 입장에서는 또다시 목숨 부지의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자신을 거두어달라는 요청에 신림이 처자식이 있는 몸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자 소실로라도 데리고 가달라고 애원하는 처녀의 행동은 그 시점에 자신의 실존적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진 유일한 인간이 신림이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신림의 거부는 처녀 입장에서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사건이 된다.

세 여성 인물은 이성 상대와의 관계 맺음 과정에서 자신의 욕망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표현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크게 좌절하였고 그 결과 원혼이 되었다. 이에 대해 그간 성적 욕망을 키워드로 하여 이해해 왔는데, 조금 관점을 달리 하여 남성과 여성간 관계의 문제이긴 하지만 성적 욕망, 혹은 이에 기반한 남성과의 결합 욕망으로만 보기보다 남성으로부터 거부당한 사건은 여성 주체의 입장에서는 실존을 부정당함으로써 사회적 죽음의 상태로 내몰린 것임에 주목할 수 있고, 그러한 바탕에서 이들이 자연스럽지 못한 죽음을 맞았기에 원혼으로의 존재 변환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는 쪽도 타당한 설득력을 확보한다.

### 3 여성 원혼의 복수서사

남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건을 겪은 여성 주체들은 크게 좌절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는데, 이들의 자연스럽지 못하고 원통한 죽음은 다음 사건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어 복수사건의 시퀀스를 추동한다. 해당 설화들에서 복수사건의 시퀀스를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설화	복수사건의 시퀀스
〈첫날밤 소박맞은 신부〉	도망간 신랑의 출산을 방해함 → 신랑이 찾아와 위로하자 사그라짐
〈조월천과 상사뱀〉	상사뱀이 되어 남성을 쫓아다님 → 상사뱀을 알아본 스승에 의해 불잡힘 → 탈출하여 상대 남성의 가족을 몰살시킴

〈신립장군과 원귀〉	전쟁에 나간 남성을 괴롭힘 → 남성은 전쟁에 크게 패하여 죽음을 맞이함
------------	--

여성 주체들은 원혼이 되어 상대 남성에게 직접적으로 가해를 하는데, 원혼으로서의 형상과 복수 방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구연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신랑이 토끼(도망) 가거든. 가 가지고, 또 딴 남자로 참 딴 여자한테 딴 처자한테 장개를 갔거든. 가노이께네 그처자강[청중: 오늘 저녁에 이어기도 돼도 안 한다.] 그 처자강 사이께네, 다시(도무지) 자숙을 낳아 살아도 재수가 없거든. … 또 자숙(자식)을 낳아노이, 자숙이 자꾸 죽거든. 또 자숙이 또 죽고 또 낳아노이 또 죽어서러 할 수없어서, … (〈첫날밤 소박맞은 신부〉)<sup>20</sup>

—고마 상사가 나와서 바 온 집안을 마 그마 뱀이라고요. 이래놓이께네 마형, 지, 동상 마 머 삼형제가 전부 마 상사가 감아 직이가주고, 그래 인제 그 집이 다 거어서 멸족을 했뿌렸어.(〈조월천과 상사뱀〉)<sup>21</sup>

—그라고 나이 임란이 났다 말이라고요. 임란이 나가주고 어데더러 진을 쳤는기 아이라, 충청도 보병고개에서 진을 쳤거든. 치이 실패고, 치이 실패라. 그래 한날 밤에는 그 여자가 와가주고요, 꿈에 선물을 댄다 말이라, “장군님, 그런 기 아이라, 내일은 어떻게 어떻게 해가주고, 진을 치만 성공을 합니다.” 처음에는 안 들었거던요. 안 듣고 있다가 원칸 실패를, 패전을 해싸이건데, 하문 들었다 말이다. 들이이, 시긴대로 하이 성공이거던요. 한 도오분 성공했어요. 하고나여 냉제에는 전장을 하는데 그 여자, 죽은 여자가여 처매에 고치가루를 싸가 와가주고 신대장 눈

20 ‘소박당한 신부’, 8-9, 진례면1.

21 ‘조월천과 상사뱀’, 7-11, 산성면25.

에 뿌리, 뿌리가주고, 그래, 패, 신대장이 죽었다고,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신립장군과 원귀>><sup>22</sup>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설화들 중에서는 원혼이 된 여성 주체의 복수 행위가 가장 약하게 나타나는 것이 <첫날밤 소박맞은 신부>인데, 이 유형 안에서 첫날밤 도망간 신랑에 의해 원혼이 된 신부들의 이후 행보는 각편에 따라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편이다.<sup>23</sup> ‘신부의 원한’(7-6, 달산면83)에서는 신부가 호랑이로 변신하여 신랑을 해치기 위해 나타나지만 결국 실패하고 신랑의 정성스런 위로를 받은 후 백년언약을 맺고 다시 잘살기도 하고, ‘첫날밤에 원한을 산 사람’(7-6, 창수면42)과 같은 자료에서는 신부 원혼이 신랑을 해치기 위해서 천 개나 되는 널을 치우며 접근하지만 신랑이 점쟁이 말대로 방비한 덕분에 결국 복수에 실패하고 떠나기도 한다. 혹은 ‘첫날밤에 소박맞은 신부’(6-5, 산이면17)에서는 신부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관(官)의 힘을 빌어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신체를 회복한 상태에서 신랑과 다시 좋은 관계를 맺기도 한다.<sup>24</sup>

**22** ‘신립장군과 원혼녀’, 7-13, 대구시12.

위의 세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동일한 시퀀스를 보이는 설화와 장면으로 다음의 자료들도 참고하여 함께 볼 수 있다.

—아들 하나 종자를 하나 매련 했는데, 그렇지마는 니가 죽을 적에는 목 빨러 죽을끼다. 내가 목은 뿌려져(부러져)죽을끼다. 내가 고마꿈(그 만큼) 고고는 했다. 그래 그거 범전 땅 참저어 [수정하여] 이 아부가 죽을 적에는 대청 끝에 올라가, 이전에는 참 이래 청이 이래 높은 청이 있거든요. 말로 탈라 카른. 그 참 하인이 말로 떡갓다 대이 거서 턱 타다가 거서 딱 널저가(떨어져서) 목을 빨리어 사흘만에 딱 죽어뵈어(‘밀양 범전땅 오봉에 전설’, 8-9, 상동면42).

—그래서 임백호씨가 뿔 하나라도 헐라면은 그것이 나타나갓고 밥 배알을 쳐, 귀신이 나와갓고 구신, 그것이 나와갓고 바알 배알을 쳐. 그래서 그것을 달, 달래서 보내서 안죽었으면 괜찮은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먹겠어. 아무것도 못해 먹었어(‘여자의 원한 산 임백호’, 6-8, 황룡면22).

**23** 『문학치료서사사전』에서는 <첫날밤 도망간 신랑과 죽어서도 기다린 신부>, <첫날밤 도망간 신랑과 원귀가 된 신부>, <첫날밤에 족제비 보고 웃다가 소박맞은 신부> 등으로 서사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지만, 조금 범주를 넓히면 첫날밤 도망간 신랑 때문에 주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첫날밤 소박맞은 신부>라는 유형으로 모두 묶어 다루어볼 수 있다.

**24** 이러한 자료의 양상 때문에, 첫날밤 소박맞은 신부의 목소리에 주목한 선행연구에서는 신

신랑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는 ‘소박당한 신부’(8-9, 진례면1)가 있다. 이 각편에서는 도망간 뒤 다른 여성과 결혼한 신랑이 아이를 낳는 족족 죽어버려서 원인을 알기 위해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본택이 아직 안 죽고 쪽두리도 안 벗기고 첫날밤 모양 그대로 앉아 있다.”고 하여 신랑이 찾아가 쪽두리를 벗겨주었더니 신부가 초승달처럼 사르르 사그라졌다. 또한 ‘소박 당하고 원귀가 된 며느리’(6-6, 임자면20)에서는 신부를 소박놓은 신랑이 과거 시험을 볼 때마다 낙방하였다.

이 설화에서 좀 더 주목할 지점은 원혼이 된 신부 때문에 신부의 집안뿐만 아니라 그 고을 전체가 모두 폐허가 되어 버린다는 사실이다. ‘소박당한 여자’(8-9, 상동면27)에서는 신부가 발 아래부터 점차 구렁이로 변해가고 밤만 되면 천둥 치는 소리로 울어대었다.<sup>25</sup> 여성 주체의 분노 에너지는 자신을 공격하여 원혼으로 변신하는 데 머무르지 못하고 온 고을에 뺨쳐가는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갖는 것이었다. 하지만 온 고을이 폐읍 지경에 이르게 하는 강력한 힘을 보임에도 정작 당사자인 신랑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었다. 신랑은 하던 일이 잘

부의 대응에 따라 침묵으로 일관하는 유형1과 적극적으로 위협하고 말하는 유형2, 적극적으로 말하면서 원귀가 되지 않는 유형3으로 나누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유형1에 분류한 ‘신부의 원혼’(사동면20)에서도 밤만 되면 신부의 울음소리가 퍼져 동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그 집은 흥가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것을 단지 언어화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목소리 자체가 없는, 소극적인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남기민, 「〈첫날밤에 소박맞은 신부〉 이야기의 변이 양상과 그 의미」, 『우리文學研究』 제64집, 우리문학회, 2019 참고).

- 25 “...그러이 이 각시가 원혼이 돼가지고, 사람이 안 되고, 형상이 변하는기라. 차츰차츰 발에 시작해서러 구리이(구렁이)가 돼 떡 올라오는데, 사람의 체격은 얼마 안 되는데, 이 구리이가 되가 난 뒤에, 이놈은 마치 가당차이 집똥걸이 크거든. 그러이, 날이 갈수록 자꾸 이 사람이 체격이 구리이가 돼가 오는데, 그러이 난제는(나중에는) 구리이가 다 되고, 대가리만 딱.사람이 돼 가지고 이래 있는데, 그러이 이기 못 된 배미가 돼 노이 집에서러 한 번 요동을 치면, 마 온 동네 사람이 다 놀래고, 집안 사람 놀래는 거는 물론이고, 이나와서러 뭐 해곳이 할까 싫어서러 지 동네 사람도 겁을 내가 이래간 안된다고, 어데 가다야지 이러쌓이, 사실 참 우짤 수가 없으이, 철망을 쳐가지고 가다 났거든. 가다노이, 이기 밤만 되믄 인제 우네. 우는데, 이놈의 소리는 마치 산이 찌지는 소리가 나고, 친둥치는 소리가 나는데, 그러이 온 동네 사람이 다 놀래는 판이라...”

되지 않거나, 우연히 그 근처를 지나다가 신부의 소식을 알게 될 뿐이어서 대상을 직접 공격하지는 못하는 무력한 모습인 것이다. 그렇기에 신랑이 아이를 낳는 족족 죽어버렸다는 구체적인 사건이 제시되는 ‘소박당한 신부’(8-9, 진례면1)의 사례는 직접적인 복수의 서사가 완결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것이다.<sup>26</sup>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대상을 직접 공격하는 복수의 힘은 <조월천과 상사뱀>에서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위의 예문에도 제시했듯 ‘조월천과 상사뱀’(7-11, 산성면25)처럼 상사뱀이 된 여성 주체가 조월천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까지 모두 감아 죽여서 집안이 멸족이 되었다는 서술에 주목한다. 월이의 분노는 다른 설화들과 달리 원인사건의 시퀀스가 두 단계를 거친다는 점에서 특징을 갖는데, 1단계에서는 애정의 감정을 여성 쪽이 먼저 표현하였다. 편지를 돌멩이에 묶어 조월천이 지나가는 길에 떨어뜨렸던 월이의 행동은 상대에게 무리하게 다가서지 않으면서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던 신중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월천은 편지를 읽지도 않고 찢어버렸고, 이에 상처 입은 월이는 1차 좌절을 경험하였다. 이후 병이 깊어진 월이가 조월천의 위로를 원하였지만 손에 명주 수건을 감은 채 월이의 얼굴에 손을 대는 등 마는 등 했던 조월천의 행동에 의해 월이는 2차 좌절을 경험하는데, 원인사건의 시퀀스에서 좌절을 강화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월이의 분노는 극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이해한다면, 월이가 모습을 드러내고 직접 움직이는 원혼으로서 상사뱀의 형상을 갖게 된 것은 첫날밤 모습 그대로 굳어버리는, 신부의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형상에 비해서 그 강도가 좀 더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조월천의 스승으로 등장하는 오성대감의 눈에 띄게도 되었고, 곧바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인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

---

26 원혼이 된 신부가 울어대는 귀곡성은 언어화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발화 행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신부의 억울함은 세상을 향해 알려져야 할 것이었는데, 신랑이 첫날밤 도망가 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된 데에는 개인의 어리석음이라기보다 첫날밤 신부는 완전무결한 존재여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작동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고정된 인식은 방문에 비친 나뭇잎의 그림자만 보고도 간부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었기에 신부는 이러한 현실에 좌절하여 세상을 향해 절박한 울음을 토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었으나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아내지 못한 인물의 부주의로 제약이 풀렸을 때 원혼은 곧바로 복수에 성공하게 되었다. 조월천의 스승 오성대감에 의해 붓뚜껑 안에 갇힌 것은 이른바 제3차 좌절의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월이의 욕망은 처음부터 끝까지 남성 지배 권력에 의해 부정당한 것으로서 이처럼 중층적으로 쌓인 좌절은 분노 에너지를 극단으로 밀어붙여 조월천 개인만이 아니라 그 형제들을 모두 감아 죽임으로써 멸족에 이르게 하였다. 월이의 분노와 복수가 조월천에게만 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배경으로 하여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신립장군과 원귀>의 원혼은 위의 두 설화와 비교한다면 그 분노 에너지의 표출에 의해 맞이하게 된 결말에서 더욱 큰 사회적 영향력을 보인다. 『대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십여 편의 각편이 대체로 신립이 임진왜란에 출전했을 때 탄금대에 진을 치라고 하는 원혼의 소리에 홀려 탄금대에서 싸우다 대패하고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결말을 보이는데, 원혼의 행위가 좀 더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

—그래 신립이 화살을 가주고서 버릇고서 썩이께 거시기 왜놈한테 가이께 이 귀신이 고만에 가서 화살을 고마 꺾어 쥐고, 꺾어 쥐고, 공주에 산발해가주고 그카네 그러. 하이, 그 귀 귀신이 내가 살아가주고 너하고 원수를 아해 그디 그랬다고 막막 화살을 막 꺾어 쥐고, 화살을 꺾어 쥐고. 귀시이 고마 산발했는게. (‘신립 장군의 패전과 처녀의 원혼’, 7-18, 개포면31)

—냉제에는 전장을 하는데 그 여자, 죽은 여자가여 처매에 고치가루를 싸가 와가주고 신대장 눈에 뿌리, 뿌리가주고, 그래, 패, 신대장이 죽었다꼬,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신립장군과 원혼녀’, 7-13, 대구시12)

목숨은 건졌으나 앞으로 산속 외딴 집에서 홀로 살아갈 일이 막막한 상황에서 처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신립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는 것뿐이었는데 이를 거부당하자 처녀는 신립이 보는 앞에서 불 지른 집 지붕에서 뛰어내렸다. 이 원혼이 신

립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는 시간상 지연이 있다. 상사뱀이 된 월이처럼 곧바로 모습을 드러내진 않는 것이다. 원혼은 신립이 나중에 장군이 되어 임진왜란에 참전하게 되었을 때 행동하였다.

신립이 탄금대 전투에서 패배한 사건은 이후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에 큰 손실을 끼친 것이어서, 1592년 4월 28일 충주 탄금대 전투에서 승리한 일본군은 5월 3일에는 한양에 입성하였고 결국 선조는 피난을 가야 했다. 임진왜란 초기 최대의 전투이자 실패한 전투였던 것이다. 그리하다 보니 험준하여 천혜의 요새가 될 수 있었던 조령을 포기하고 탄금대에 배수진을 친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다.<sup>27</sup> 설화 전승자들은 어떻게든 신립의 선택을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하였고, 귀신의 조화 아니고서야 그런 작전이 가능할 리 없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처녀의 사연이 개입하게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이 설화를 이해해 보면, 원혼이 된 여성이 신립 개인에게 직접적·물리적 피해를 입히는 힘을 가지지 않고 ‘탄금대에 진을 치라’는 소리로 혼란을 주는 방식을 택한 것에서 그 복수의 의도를 가늠해 볼 수 있겠다. 왜란 평정의 막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인물에게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개인의 실패로만 귀결되지 않고 나라에 큰 손실을 입히는 결과를 끌어냈다.

또한 신립이 전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상황에 신립의 조부(祖父)가 머리 산발한 원귀가 조화를 부리고 있음을 알아보기도 하는데,<sup>28</sup> 이는 조월천의 스승인 오성대감이 상사뱀이 된 월이의 원혼을 알아본 상황과 통하는 맥락이 있다. 여성 원혼의 존재는 권위 있는 남성에게 의해 남성의 사회적 역할을 방해하는 사된

---

27 “명나라 장수인 이여송은 조령을 지나면서 “이런 천혜의 요새지를 두고도 지킬 줄 몰랐으니, 신립은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다”하였고, 유성룡은 “신립은 원래 날쌔고 용감한 것으로 이름이 높았으나, 전투의 계획에는 부족한 인물이었다”고 평하였으며, 정약용은 유배 가는 길에 탄금대를 지나면서 “신립을 일으키어 애기나 좀 해봤으면, 어찌하여 문을 열어 적을 받아들였는지?”라며 탄식하였다. (이상훈, 「신립의 작전지역 선정과 탄금대 전투」, 『군사(military history)』 제87집,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276쪽).

28 “...그래 하이 그거 조부가 탄금대 올라가서 손자 어에는가 볼랐고 인제 보이께, [큰 소리로]그 조부한테 눈에 머리 산발한 여자가 완연히 비(보여). 화살 땡기만 남, 내저는 고만 귀신이 고만 섰으니 고만에 꺾어졌부고, 꺾어졌부고 하이께네 뭐 되는가?” (‘신립 장군의 패전과 처녀의 원혼’, 7-18, 개포면31).



것으로서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판명되는 것이다.

이상 세 설화의 복수 시퀀스를 살펴본바, 그 물리적 영향력이 가장 직접적으로 발휘되는 것은 조월천의 가족을 멸족시킨 월이의 상사뱀 원혼인데, 원혼의 분노 에너지가 피해를 입히는 범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첫날밤 소박맞은 신부는 상대 남성에게 직접적으로 가해하기보다 사회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는 정도였다면, 상사뱀이 된 월이는 상대 남성에게 직접 가해하여 그 가족에게 피해를 입혔고, 신립에게 버림받은 처녀는 원혼의 힘으로 상대 남성의 사회적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국가적 피해와 혼란을 야기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 여성 원혼의 서사적 정체성과 성정치적 의미

상대 남성과의 관계 맺음 과정에서 상대의 거부로 인해 버림받은 것이 원인사건이 되어 복수사건의 주체가 되는 여성 원혼들의 서사를 살펴보았다. 여성 주체의 좌절은 분노 감정을 에너지로 하여 원혼으로의 변신을 끌어내게 되었고, 이후 복수사건의 시퀀스는 여성 주체들이 원혼의 형상을 갖게 된 상태에서 행하는 복수행위로 구성되는데, 가해의 직접성과 그 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범위에 따라 유의미한 단계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우선 여성 원혼의 복수서사를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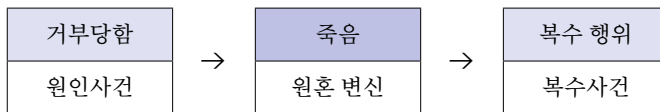


표 1. 복수하는 여성 서사의 존재 변환 도식

원인사건에서 복수사건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원혼으로의 변신이 자리한다. 원혼의 형상을 갖춘 상태에서 복수 행위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여성 주체가 정체성을 구성해가는 과정에 주목하게 된다. 이들의 복수서사에서 원인사건은 상대 남성으로부터 버림받음에 의해 발생하는데, 여기에는 고정된 본질적 속성으로서

의 여성이라는 존재적 속성이 그 원인으로 작용한다. <첫날밤 소박맞은 신부>에서는 신부에게 간부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한 신랑이 신혼 첫날밤 바로 도망가 버리는 것이 여성 원혼의 발생 이유가 되는데, 신랑의 막무가내 의심에는 정숙한 신부에 대한 규범이 강하게 자리한다. 자신이 혼인관계를 맺은 그 대상의 실체가 어떠한지와는 상관없이 ‘정숙하지 못한’ 신부를 맞이했을 때 자신의 목숨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불안에 의해 선택된 행동이다. <조월천과 상사뱀>에서는 ‘욕망을 드러내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 거부감이 여성 원혼의 발생 이유가 된다. 자신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의 마음을 살피기 이전에 함부로 편지를 보내는 여성에 대한 거부감이 끝내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자를 살피지도 못하는 무례로 드러났다. 자신에게 몸을 의탁하려는 처녀의 청을 단호하게 거부한 신립은 처자식이 있음을 이유로 들면서 규범에 의거한 행동을 보였으나, 그 이전에 역시 ‘욕망을 드러내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 거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혼 여성의 욕망은 성적인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정상 가족 안에서 사회의 구조를 견고하게 받쳐줄 만한 생산성을 담보하지 못하기에 금기시되는 것이다. 설화 속 남성들은 정상성과 규범의 세계 안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아직 정치적 상황 안에 포섭되지 못한 존재와 관계 맺기를 시도할 만한 담력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자신의 도덕적 준칙과 세상의 마땅한 법칙의 기준에 의거하여 확신을 가지고 가르기서사<sup>29</sup>의 관계 맺기 양상을 보였다. 이들이 상대하는 여

---

29 “각 서사영역의 주체가 대상과의 관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맺어 나가고 처리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다시 가르기서사, 밀치기서사, 되찾기서사, 감싸기서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가르기서사와 감싸기서사가 양극을 형성하고 있는데, 가르기서사는 규범을 내세우는 서사라면 감싸기서사는 규범을 내세우지 않는 서사이다. 그리고 밀치기서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다가 규범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가르기서사 쪽으로 밀쳐내는 서사이고, 되찾기서사는 규범에 맞지 않는다고 돌아보지 않다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아차리고 감싸기서사 쪽으로 방향 선회를 하는 서사이다. 밀치기서사와 되찾기서사의 공통점은 서사의 주체가 의혹을 품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르기서사와 감싸기서사의 공통점은 서사의 주체가 확신에 차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르기서사와 밀치기서사의 공통점은 서사의 주체가 궁극적으로 규범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되찾기서사와 감싸기서사의 공통점은 서사의 주체가 궁극적으로 규범을 초극한다는 것이다.”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제9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266-267쪽).

성들 개개인의 인간적 성정이나 잘잘못과도 관계없는 부분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은 사회의 기반 구조를 이루는 주요 주체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며, 이로 인해 여성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부수적인 존재로 밀려난다. 이처럼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기정당성을 지키려는 남성 인물들의 태도에 의해 여성 인물들은 기존의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형상을 유지하기 힘든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지 못했기에 원혼으로서의 형상을 갖게 되었고, 이처럼 그 존재적 속성 자체를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관계의 국면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본고에서 채택한 개념이 ‘서사적 정체성’이다. 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존재성과 관계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데, 이제까지의 논의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된바 작품 속 인물의 존재적 정체성은 관계의 성립과 변화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존재의 속성에 따라 관계가 성립되고 변화하며 관계적 경험을 통해 존재가 성립되고 변화하기 때문이다.<sup>30</sup> 한 사람의 존재적 측면 또는 존재적 특성은 그 삶의 속성과 방향성을 내포하고 좌우한다는 점에서 자기서사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되는데, 그것은 관계적 측면과 긴밀한 상호작용 관계에 있는 것이기도 하여 한 사람이 지닌 존재적 특성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전개하는 양상에 질적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sup>31</sup> 이 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존재성은 ‘무엇이다’, 혹은 ‘어떠한 상태에 있다’로 규정되는 속성이고, 관계성은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하다’, 혹은 ‘누구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이다’로 규정되는 속성이라는 개념 규정이 제시된다.<sup>32</sup>

리퀴르의 관점에서는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것은 “누가 그런 행동을 했는가?”

30 신동훈, 「문학치료학 서사이론의 보완·확장 방안 연구-서사 개념의 재설정과 서사의 이원적 체계」, 『문학치료연구』 제38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6, 31-32쪽 참고.

31 신동훈, 「문학치료를 위한 서사 분석 요소와 체계 연구」, 『문학치료연구』 제49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8, 22쪽.

32 권도영, 「모성에 주목하여 본 마녀 캐릭터의 서사적 정체성-영화 <말레피센트>, <크루엘라>, <블랙 위도우>를 대상으로」, 『문학치료연구』 제62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22 참고. 이 논문에서는 마녀 캐릭터로 상정한 작품 속 인물들에 대해서 ‘거세당한 여성으로서의 존재성’과 ‘배제와 수호의 관계성’으로 분석하였다. 마녀로 규정되면서 거세당한 존재였던 인물들이 배제와 수호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였다고 본 것이다.

누가 그 행동의 주체이고, 당사자인가 하는 물음에 답하는 것”<sup>33</sup>이다. 살아가며 겪었던 이질적이고 단편적인 정서, 생각, 인물, 사건을 일관성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종합하여 삶을 서사화함으로써 정체성에 접근할 수 있기에 개인의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서사적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sup>34</sup>

앞에서 여성 원혼들의 분노로 인한 좌절과 원혼으로의 변신을 ‘실존을 부정당한 사회적 죽음’으로 보았다. <신립장군과 원귀>에서 신립의 장인으로 등장하는 권윤의 태도나 전승자의 덧붙임에서도 강조되듯 사람 하나 살리지 못하면서 대장부라 할 수 있느냐는 타박에서도 여성 이전에 목숨이 위태로운 한 인간에 대한 시선을 확인할 수 있다.<sup>35</sup> 남성의 거부를 실존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인 여성들은 죽어 원혼이 되었고, 이후에는 좌절한 주체가 아니라 복수하는 주체로 변화하였다.

서사의 주체로서 여성 원혼은 상대 남성과 관계 맺음을 시도하였다가 이에 실패하자 상대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상대와의 관계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의혹을 가진 상태에서 그 존재를 자신의 영역 밖으로 강하게 밀어내는 관계 운영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로써 복수하는 여성 원혼이 형성하는 서사적 정체성은 자기 존재를 부정당했을 때 극심한 좌절의 상태를 보이는 존재적 속성과, 의혹을 가진 채 상대를 강하게 밀어내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복수하는 행위를 보이는 관계적 속성을 통해 강한 밀치기서사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확신을 추구하는 가르기서사는 확신이 유지되지만, 의혹을 품고 추구하는 밀치기서사는 처음엔 상대방을 믿거나 기대하거나 의지했다가 그 믿음이나 기대에 의혹이 생겼을 때 바로 자신의 소망이나 규범으로 즉 가르기서사의

33 Ricoeur, 김한식 옮김, 『시간과 이야기 3』, 문학과지성사, 2004(정진석, 「서사적 정체성의 문학교육적 접근에 대한 비판적 고찰」, 『청람어문교육』 제59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16, 11쪽에서 재인용).

34 정진석, 위의 논문, 12쪽.

35 물론 각편 중에는 “사내가 여자 둘을 데리고 있는 것이 예사인데 퇴박을 했으니 장래가 해롭다”(‘신립장군과 탄금대’, 2-9, 주천면24)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전승자 개인의 가치관이 투영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끝내 여성 대 남성의 구도, 성적 욕망의 차원에서만 서사를 이해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방향으로 선회하는 관계 맺기 양상이다.

실존을 부정당한 사회적 죽음은 일종의 거세당함<sup>36</sup>의 상황이다. 여성 주체의 강한 밀치기서사는 원혼으로의 변신을 통해 ‘거세하는’ 여성으로서의 힘을 갖추게 하였다. 해당 설화들의 여성 주체는 혼인 등을 통해 기존 가족 질서의 공고한 체제 안에 아직 진입하지 못한 이들에게 사회적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체제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이라는 상태는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자기정당성을 주장할 목소리마저 갖지 못함을 의미하며 그런 상태에서 존재를 거부당함은 곧 ‘거세당함’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신립이 집에 불을 지르고 지붕에서 떨어지는 처녀를 보고도 그대로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온 것은 처녀의 목숨은 안중에 없었다는, 그래서 큰인물이 될 자질은 갖추지 못했다는 개인적 자질로서 숙되기도 하지만, 처녀의 생명을 누구나 죽여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호모사케르(Homo Sacer)의 위치에서 이해하게 되는 상황이다.

여성 원혼에 대해 하위 주체인 서발턴(subalton)으로서 발화하지 못하는 목소리를 가진 존재로 설명할 수도 있으나, 단지 언어를 갖지 못하여 ‘말할 수 없음’에만 주목하여 하위 주체로서의 상태로만 이해할 일은 아니다.<sup>37</sup> 그것을 생명 정치의 범주에서 논하자면 결국 이들은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체제 내부의 존재로서 소우주에 속하지 못하고 대우주의 범주에서 별거벗은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38</sup>

여성 주체가 원혼으로 변신하는 것은 본래의 몸이 갖지 못했던 능력을 획득하는 의미가 있으며,<sup>39</sup> 이에 따라 ‘거세당한’ 상태에서 ‘거세하는’ 상태로의 변환

---

36 본고에서 ‘거세’라는 표현을 굳이 쓰게 된 데에는 여성 주체가 남성으로부터 버림받음은 실존에 대한 부정이고 이는 사회적 죽음, 곧 사회적 거세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거세 개념과는 다른 차원에서 본고의 관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선택한 개념인데, 원혼으로의 변신과 복수 행위로 이어지는 여성 원혼의 서사에서 ‘거세당함’과 ‘거세함’의 차이가 분명하게 대비되는 현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37 남기민, 「〈첫날밤에 소박맞은 신부〉 이야기의 변이 양상과 그 의미」, 『우리文學研究』 제 64집, 우리문화회, 2019, 225쪽.

38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주권 권력과 별거벗은 생명』, 새물결, 2008.

39 최원오, 「‘원형 개념’으로서의 변신에 내재되어 있는 세 가지 특성과 변신 미학」, 『구비문학연구』 제29집, 한국구비문화회, 2009 참고.

이라는 의미도 동시에 획득한다. 여성 원혼의 복수는 남성 인물들의 사회적 지위를 무력화하는 데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 원혼의 힘이 작용한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세 설화에서 서로 다른 단계적 차이를 확인했는데, 첫날밤 신부를 버리고 도망간 신랑은 과거 시험에 낙방하거나, 아이를 낳을 때마다 죽어버려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조월천은 형제들까지 상사뱀에게 죽임을 당하여 집안이 멸족이 되었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한 가문을 멸망시켰다는 것은 사회적 존재 근거 자체를 말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립장군이 임진왜란에서 가장 크게 패전한 전투로 역사적 기록도 갖고 있는 탄금대 전투의 주인공이 된 것은 신립 개인의 피해만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위기까지 초래하는 것이었다.

한편 여성 원혼의 복수 행위는 명백하게 타인에게 해를 끼친 것임에도 이미 죽은 자에 의해 행해진 것이기에 사회적 법제도에 의해 범죄로서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은 되지 못한다. 그러나 법제도 안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감정과 행위이기에 오히려 정치적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 원혼의 복수 행위이다. 여성 원혼들은 여성으로서 겪은 일에 대해 원혼으로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여성의 존재적 속성은 거세당함이라는 원인사건의 조건이 되었고, 이로 인해 원혼이라는 새로운 존재적 속성을 갖게 된 여성 원혼은 거세당함이라는 복수사건의 행위를 행하였다. 이에 대한 서사 안팎의 평가는 ‘여성’과 ‘원혼’의 경계지움에 의거하여 정치적 행위의 영향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었다.

가부장제하에서 여성은 자신에 대한 상징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한다. 여성에 관한 문화를 형성한 관념들도 모두 남성에게서 나온 것이었으며, 여성의 타자성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남성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여성의 이미지이다.<sup>40</sup> 복수하는 여성이 원혼의 형상을 갖추고 있는 것은, 발화와 해원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형상으로는 행해질 수 없는 것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상사뱀을 붓뚜껍에 가두고, 해코지하는 원귀의 모습을 보아내는 권위자 남성의 시선으로 이 이야기들이 전해지기도 하는 것이며 여자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을 때 남성의 사회적 지위에 심각한

40 케이트 밀렛, 김유경 옮김, 『성 정치학』, 쌤앤파커스, 2020, 110-111쪽.

위협이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역설적 서사가 되기도 한다.

## 5 결론

구비설화에서 남성에게 연모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몸을 의탁하기를 요구했던 여성들이 남성으로부터 버림받고 원혼이 되어 복수하는 서사들을 발견할 수 있다. 원인사건과 복수사건으로 이루어지는 복수서사의 구조 속에서 여성 원혼들은 버림받음에 의해 크게 좌절하여 원혼으로의 존재 변환을 이루게 되고, 원혼의 상태에서 상대 남성에게 되갚음을 시도하는데 그것은 상대 남성에게 물리적 피해를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당한 만큼 갚는다’는 복수의 일원칙을 넘어서서 사회적 무력화를 시도하는 방식이었다.

여성 원혼이 서사의 주체로서 정체성을 구성해가는 서사는 여성과 원혼이라는 존재적 속성에 기반하여 강력한 밀치기서사와 가르기서사에 의해 운영되는 관계적 속성을 끌어내었다. 원귀와 상사뱀이라는 원혼 형상은 현실 안에서 용인되거나 처리되는 감정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그 형성 배경으로 작동할 수 있다. 가부장제 안에서 가족을 형성하지 못한 여성의 욕망은 함부로 표현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여성의 생명은 남성 구성원에 의해 버림받아도 좋을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호모사케르적 의미를 품고 있다.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되갚음을 시도하는데, 그것이 원혼의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 정치의 관점에서 역설적 현상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원혼이 되었기에 상대 남성에게 가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기도 하지만, 이는 남성 시선에 의해 금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여성 원혼의 복수서사에 대해서 서사적 정체성 형성과정을 통해 그 중층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였는데, 결국 그 과정에서 역설적 의미도 발견해 볼 수 있었다. 그간 원혼설화에 대한 많은 연구성과들이 있어 왔지만, 여성이나 원혼이라는 존재적 속성에 의거한 단편적 해석을 넘어서기 위해 그 변화하는 정체성에 기반한 관계적 속성과 그로 인해 구성되는 서사를 살핌으로써 여성 원혼 설화를 복수서사의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기본 자료

문학치료 서사사전 연구모임, 『문학치료 서사사전』, 휴머니스트, 2022.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부록 (1) 한국설화유형분류집  
\_\_\_\_\_, 『한국구비문학대계』, <https://gubi.aks.ac.kr/web/>

### 단행본

제임스 프록터, 손유경 역, 『지금 스투어트 홀』, 앨피, 2006, 218-220쪽.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주권 권력과 별거벗은 생명』, 새물결,  
2008.  
케이트 밀렛, 김유경 옮김, 『성 정치학』, 쌤앤파커스, 2020, 110-111쪽.  
폴 리콤프, 김한식 옮김, 『시간과 이야기 3』, 문학과지성사, 2004.

### 논문

강진옥, 「원혼설화에 나타난 원혼의 형상성 연구-〈아랑형〉과 〈사그라진 신부  
원귀〉 설화를 중심으로-」, 『口碑文學研究』 제12집, 한국구비문학회, 2001,  
1-45쪽.  
\_\_\_\_\_, 「육구형 원혼설화의 형성과정과 변모양상」, 『한국문화연구』 제4집, 이  
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3, 7-47쪽.  
권도영, 「여성 원혼설화에 나타난 분노 표출의 문제 분석 및 해결서사 탐색」, 건  
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1-145쪽.  
\_\_\_\_\_, 「모성에 주목하여 본 마녀 캐릭터의 서사적 정체성-영화 〈말레피센트〉,  
〈크루엘라〉, 〈블랙 위도우〉를 대상으로」, 『문학치료연구』 제62집, 한국문학  
치료학회, 2022, 291-323쪽.  
남기민, 「〈첫날밤에 소박맞은 신부〉 이야기의 변이 양상과 그 의미」, 『우리文學  
연구』 제64집, 우리문화회, 2019, 207-233쪽.  
신동훈, 「문학치료학 서사이론의 보완·확장 방안 연구-서사 개념의 재설정과  
서사의 이원적 체계」, 『문학치료연구』 제38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6,



9-63쪽.

\_\_\_\_\_, 「문학치료를 위한 서사 분석 요소와 체계 연구」, 『문학치료연구』 제 49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8, 9-89쪽.

이상훈, 「신립의 작전지역 선정과 탄금대 전투」, 『군사(military history)』 제 87집,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275-302쪽.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제9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247-278쪽.

\_\_\_\_\_, 「문학치료학의 서사 및 서사의 주체와 문학연구의 새 지평」, 『문학치료 연구』 제21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1, 233-252쪽.

정은지, 「복수설화의 전승양상과 사회문화적 의미」,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1-103쪽.

정진석, 「서사적 정체성의 문학교육적 접근에 대한 비판적 고찰」, 『청람어문교육』 제59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16, 7-33쪽.

최기숙, 「“여성 원귀”의 환상적 서사화 방식을 통해 본 하위 주체의 타자화 과정과 문화적 위치-고전 소설에 나타난 “자살”과 “원귀” 서사의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고소설연구』 제2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6, 325-355쪽.

최원오, 「‘원형 개념’으로서의 변신에 내재되어 있는 세 가지 특성과 변신 미학」, 『구비문학연구』 제29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9, 257-280쪽.

## Abstract

The epic identity of a vengeful female ghost

Kwon Doyoung

In Korean traditional narratives, one can find a narrative pattern where a woman, rejected by a man, becomes a vengeful spirit and inflicts harm upon the male counterpart. In this paper, the focus is on three representative narratives: <첫날밤 소박맞은 신부>(The Bride Who Was Beaten on the First Night), <조월천과 상사뱀>(Jo Wolcheon and Sangsa Snake), and <신립장군과 원귀>(General Shin Rip and the Vengeful Ghost). By examining these narratives, the paper investigates the structure of revenge narratives

consisting of causal and retaliatory events. It also explores how the existential and relational attributes of the female protagonist change within each sequence.

The revenge narratives of female spirits can be understood as an attempt to address problems that arise due to the existential attribute of “woman” as a fixed and essential characteristic. Through the concept of narrative identity, the paper argues that these narratives transform the very essence of this existential attribute into a vengeful spirit, thereby forming a new relational attribute and attempting to resolve the issue through the process of forming new relationships. The revenge narratives of female spirits highlight that revenge actions could only be attempted after taking on the form of spirits, and the acts of repayment were aimed at neutralizing the social status of the male counterpart, emphasizing the sexual political significance.

Key words: Revenge, Female vengeful spirit, Narrative identity, Existential attribute, Relational attribute, Sexual politics, <The Bride Who Was Beaten on the First Night>, <Jo Wolcheon and Sangsa Snake>, <General Sinrip and the Vengeful Ghost>

논문제출 / 2023. 07. 21.

논문접수 / 2023. 07. 23.

게재확정 / 2023. 08. 04.